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(본부장 이광훈)는 16일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에서 ‘2024년도 제2차 고리원전소통위원회(이하 소통위원회)’를 개최하였다.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발전소 운영현황, 지역협력 활동, 고리본부 주변지역 지원사업 모델 개발 용역 계획, 고리1호기 해체제염 사업 등 고리원자력본부의 주요 현안을 소통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.이어서 신임 사외위원으로 임명된 박윤강 장안읍이장협의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였다. 신임 소통위원들은 원전소통위원으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. 마지막으로 위원들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화합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.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“고리원자력본부의 주요 현안을 소통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”며, “앞으로도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과 상생, 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대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겠다”고 말했다. 고리원전소통위원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시소통을 위하여 군의원, 공무원, 언론인 및 지역발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로서 연 6회 개최하고 있다.